

승오스님의

### 경전읽기

#### 승만경 ③

〈승만경〉의 원래 제목은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광경(勝獅子吼一乘大方廣經)〉이다. 승만이 사자와 같이 우렁차게 소리치니 모든 동물이 굴복하는 듯한 설법 모양을 '사자후(獅子吼)'라고 하였으며, 일승(一乘)이란, 하나인 부처님(一佛乘)을 말하는 데, 대승적인 가르침을 일컫는 것이다. 본래는 삼승(三乘)에 대한 일승인데, 삼승이란 성문(聲聞·연각(緣覺)·보살(菩薩)승을 가리키지만, 성문과 연각의 이승(二乘) 모두 우리 몸과 정신을 극복한 경지를 이상으로 한다. 즉 살아있는 삶을 부정하는 죽음의 세계가 궁극적인 깨달음(覺)의 경지인 듯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 수행하기 때문에 흔히 소승(小乘)이라고 표현된다. 그러나 보살승은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위함

을 찬탄하는데, 이와 같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곧 불법의 거룩함을 확실하게 알고 또 이 거룩한 불법을 스스로 실행하겠다는 결심이 선 증거이므로 부처님께 서 승만부인에게 수기(授記)를 하게 된다. 수기란, 지금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하면 나중에 반드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십대수장(十大受章)  
수기를 받고 크게 기뻐한 승만부인은 공손하게 부처님께 십대수(十大受)를 사뢰어 올린다. 십대수란, 이제부터 대승의 수행을 해나가는 동안에 반드시 실행하려고 생각하는 열 가지를 말하여 그 실행을 맹세하는 것이다. 이것을 열 가지 서원이라고도 하는데 그 열가지 서원은 ①계(戒)를 깨뜨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②사장(殺)에 대하여 염심(厭心)을 일으키지 않는다. ③생물

## 삼승 아닌 일승 가르침 설법

### 이타행 등 10가지 맹세 부처님도 찬탄

이상으로 하는데, 이 셋을 모두 합하여 삼승(三乘)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삼승이 모두 하나의 일승의 법으로 환원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 일승의 본래 가르침이다. 이렇게 될 때에는 삼승은 방편(方便)이 되며, 일승은 진실이 된다. 일승의 진실을 여러 방법으로 증명의 근거에 따라 설명한 것을 방광(方便)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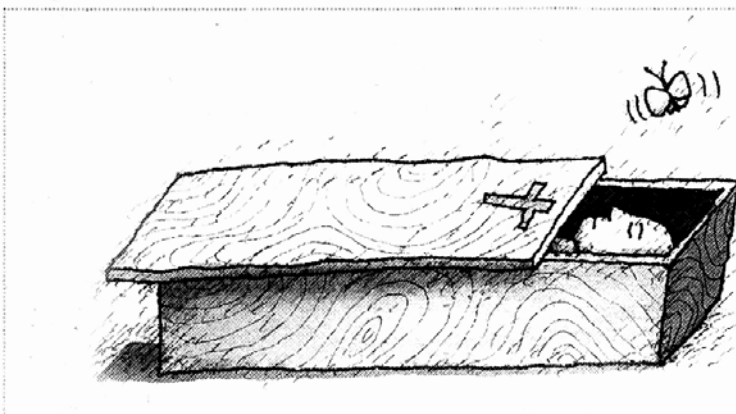
이제 〈승만경〉의 전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어떤 경전이나 그것을 크게 나누면 서분(序分)과 정중분(正宗分)과 유통분(流通分)의 셋으로 나누게 된다.

〈승만경〉의 서분에서는 사위국(舍衛國)의 파사익왕(波斯匿王)과 그 왕비 말리부인(末利夫人)이 딸 승만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승만부인이 불자가 되어 장성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정중분은 옛날부터 14장(章)으로 나누고 있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탄불진실의공덕장(讚佛真實功德章)  
먼저 승만부인이 부처님의 공

에 대하여 노여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④남의 용모나 장신구 등에 대하여 샘을 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⑤타(他人)를 아끼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⑥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지 않는다. 받은 물건이 있을 때에는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에 쓴다. ⑦보시 등 네 가지의 이타행(利他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헌신하며 자기를 위해서는 하지 않는다. 애착하지 않는 마음. 싫증내지 않는 마음. 염매(黏)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다. ⑧의지할 데 없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언제든지 구제에 나선다. ⑨생물을 포획하거나 하는 사람,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과 보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⑩진실된 가르침을 지키며 그것을 잇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러한 서원을 세움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면서 "그대로서이다. 그대가 서원을 세운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내용이다.

해인사 승가대 교수



그림·문병성

## 자연현상에 숨은 '인과' 보라

### 불교와 과학 <13>

#### 나비 한마리

아프리카 밀렵 한 가운데 높은 아자수 한 그루 옆에 나비 한 마리가 날고 있었다. 그 나비는 날개짓을 할 수 있어 날 수 있었고, 그 날개짓에 나오는 날개바람은 사람에게서 미미하게 짝이 없는 바람이지만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작은 벌레 한 마리에게는 큰 힘이었다. 그 바람 때문에 나뭇잎에 붙어 있었던 벌레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나무 가지에 붙어 놓고 있었던 원숭이 등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 원숭이는 등에 떨어진 벌레 때문에 등이 가려워 등을 긁다가 옆에 있던 작은 나무 가지 하나를 건드려 그 나무 가지는 밑으로 떨어졌다. 떨어진 장소는 마침 실개울이 흐르는 곳인데 작은 나무 가지들이 흐르지 못하고 뭉쳐있었던 작은 여울이었다. 떨어지는 힘 때문에 여울에 뭉쳐있었던 나무 가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실개울 작은 둔치에 있던 자갈들이 사태가 일어나 실개울의 물의 흐름을 막아 놓고 말았다.

그때도 물은 흐름 대를 찾아가 물꼬를 틀어 실개울 옆에 있었던 습지 지역으로 물의 흐름이 바뀌었다. 그 습지 지역에는 간헐천 지역인데 작은 마그마 활동으로 뜨거운 증기가 간헐적으로 솟아올라 바로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물꼬가 바뀐 개울물이 그 간헐공 위를 막아버려 뜨거운 마그마 증기압과 찬 실개울 물이 뒤섞여 땅 밑의 화산맥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 화산맥에 이어진 근처의 작은 휴화산의 화산맥을 터트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작은 화산맥은 아프리카 최고봉의 거대한 화산맥을 건드리는 바람에 근래에 보기 드문 화산 대 폭발을 일으키게 하였다.

화산 대폭발로 인하여 엄청난 양의 마그마와 더불어 화산재가 인근 지역을

뒤덮게 되었다. 그 화산재의 범위는 대기 상에서 지름이 800킬로미터에 이르렀고 그런 화산재는 아프리카 중서부를 관통하여 북서부로 진행하는 고온성 난류대기의 흐름을 유럽 북서부 한랭성 대기와 충돌을 유도하였고, 다시 지중해 다습한 대기와 만나 유럽 전역에 큰 세기 최대의 태풍과 비를 뿌리는 재앙을 불러와 서유럽 전체에 200백만 호의 침수와 400백만 명의 이재민 등의 어마

어마한 재난을 일으켰다.

이 이야기는 물론 가상의 재난 이야기이지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사태를 발생시킨 최초의 원인을 아프리카 밀렵 속의 작은 나비 한 마리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황당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그 나비 한 마리와 유럽 전지역에 일어난 기후 재앙 사이에 아무런 인과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사태에 대한 이런 질문을 두고 우리는 과학적 인과율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범위 안에서만 다루어져 왔는가를 느낄 수 있다. 서구의 고전 뉴턴과 학은 인과율의 범위를 현시적인 두 사건 혹은 두 사태 사이에서 벌어지는 원인과 결과만을 다루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과학적 인과율로써는 작은 나비 한 마리와 유럽의 재앙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성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인과율로는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기에

부족하였다.

그래서 60년대부터 나온 카오스 이론은 모든 자연현상 이전에 숨겨진 복잡한 인과율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과의 끈이 1길고 2복잡하며 3우회적이며 4숨겨져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인과성을 기술하려 했다. 그런 카오스 이론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로렌츠 리는 60년대 기상학자가 만든 예가 바로 위의 나비 한 마리의 이야기이며, 그런 복잡한 인과율을 우리는 보통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고 부른다.

카오스 이론에서 말하는 나비효과는 결국 자연의 현상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나비효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설의 숨은

뜻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윤회가 왜 인과적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윤회의 인과론은 분명히 고전 과학적인 인과율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그러나 현상계에 구속된 눈이 아니라 자유로운 눈으로 세계를 본다면 윤회의 그 복잡한 인과성을 한 번에 볼 수도 있다. 이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저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볼 수 있는 니르바나의 눈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서 나만이 아닌 너의 세계까지도 배려하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삶의 의미를 실현에 옮기고, 나의 존재가 우주보다 넓은 관계망 속의 한 연결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렵듯이 느낄 수 있다면 나비의 작은 날개짓 속에 숨겨져 있는 윤회의 거울 뒷면이라도 조금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최희정/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 문화·복지 등 4대 서원 절을 주민 삶의 무대로

### 지구촌 불교 / 대만 불광산사

지난해 12월 25일 대만의 천수이엔(陳水扁) 총통이 고공시(市)에 있는 불광산사를 방문했다. 그가 이 곳을 방문한 것은 이날 열리는 제4차 전국신도대회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한 나라의 수장인 총통이 일개 사찰의 신도대회에 참석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대만의 경제·문화계 인사들이 굶직한 일을 앞두고 이 곳을 방문하는 것에서부터 명문대에 적을 둔 교수와 학생들이 찾아와 집단 출가하는 것까지, 불광산사에서 우리(한국)불교계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 일어나고 있다.

대체 불광산사의 무엇이 이들을 오게 만들었을까? 신도 수가 1백만여 명을 넘는 교세 때문일까. 아니면 입제중이나 화염중, 법화중, 열반중 등 8개 종파의 스님들이 교리의 벽을 허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유롭게 펼 수 있는 사당(寺堂) 탓인가.

불광산사는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한 공화국 정부와 함께 본토에서 건너온 성운 대사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다. 당시 성운 대사는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로써 불법을 펼치며, 자선으로 사회 복지를 이루고, 수행으로 인심을 정화한다'는 4가지 서원으로 산사



◀불광산사의 '겨울맞이 자연 바자회' 모습.

### 성운스님 창건... 신도 1백만여명 넘어 대학·방송국서 고아·양로원까지 운영

를 세웠는데, 대만의 종교학자들은 오늘의 불광산사의 진면목을 바로 여기에서 찾고 있다. 일찍부터 복지와 불학 분야에 주력했던 것이 이유라는 것이다.

불광산사는 설립 때부터 영법회 청년회, 아동주일학교, 흥법단 등을 조직하고, 수계와 승가 교육에 관심을 놓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2천여 명의 스님이 구족계를 수계한 것은 물론, 세계 각지에 150개의 분원을 세우고 미술관과 도서관, 출판사, 서점, 운수(雲水)의원, 2개의 중학교와 불광대·남화대·서래대 등 3개의 대학, 불학원(대학원 과정) 등을 창설하는데 결정적인 힘이 됐다.

불광산사는 라디오와 TV를 이용한 전파 포교 역시 대만에서 가장 먼저 시도했는데, 1998년 1월 불광위성TV를 개국했을 정도다. 이외에도 불광산사는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무료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빈민들에게 의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세계 불교학회는 불교학 연구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공헌을 하고 있다. '남북(南北)의 불교를 구분없이 부처님 당시의 불교로 돌아가자', '현교와 밀교의 종파를 융합하자' 등을 이념으로 세운 불학원의 경우, 불교학의 학제간 교류 풍토를 장려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세계 현·밀 불학회의며 '선학학술대회' 등과 같이 불교학자들에게 효과적이고 국제적인 연구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현대적 문장부호를 사용한 〈불광대장경〉, 세계 불교학계의 우수 도서로 추천받은 〈불광대사전〉, 30여 년 간의 중국·대만의 선학 연구 논문 목록을 정리한 〈선학 논저 목록〉 등 다양한 성과를 내놓고, 대만을 불교학의 중심지로 만들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 새해,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월간 『법공양』에 철찬려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참회·참회-너제**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풀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모범이 참회인 것입니다.

목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침묵을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으로써 들어가는 문턱을 열어 보십시오. 기꺼이 끊었이어 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x6판 / 값 3,500원

〈구성〉  
I 업장과 참회 II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III 철을 통한 참회 IV 참회명분  
V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VI 이참법과 대승유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4x6판 / 값 3,500원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르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x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임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르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르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해국스님이 살기 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득승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